

광 고

원양산업

제 1146 호
(2022년 6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원양 업계대표들 면담 / 4
- 2022년 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 1%p 추가 인하 / 5
- 원양 오징어채낚기 업계, 해외 전문가 초빙·협의 / 5
- 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가능 / 6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2년 5월 보고 내용 / 7
- 요리 만들기 / 12
(참치마요 햄 무스비)



해외수산물정보

■ 참치어업 동향

- 4월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12개월 내 최고치 / 13
- PNA 항구 전채량 21% 증가 / 13
- 방콕 가다랑어 가격 급락, 1,600 달러 이하 / 14
- 1분기, 인도양 참치 방콕 수입 급증 / 14

- 태국 가다랑어 1분기 수입량 20% 감소 / 15
- 태국 황다랑어 1분기 수입량 22% 증가 / 15
- 태국 참치 부문, 수출 물량 10% 증가 예상 / 16
- 팔라우 수산부 장관, 연안 참치 어업 확대 주장 / 16
- 日 2022년 4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17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1,000~1,100 엔 / 18
- 日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kg당 1,179엔 / 18
- 일본 연승선사 Fukuichi, MSC 절차 시작 / 18
- IATTC 과학자문위,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건강” / 19
- 만타 가다랑어 가격 1,750~1,850 달러 수준 / 19
- IOTC,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실패 / 20
- IOTC, 참치 전채 모니터링 강화 / 20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5% 하락 1,501 달러 / 21
- Européche, EU 어선 불법어업 주장에 반발 / 21
- 1분기 EU 참치캔 수입량, 구매력 저하로 소폭 감소 / 22
- 1분기 미국 참치캔 수입량 10% 감소 / 22
- 타이유니온 MSC 참치 조달 2.4%로 감소 / 23
- 참치캔, 미국 수산물 소비 3위 / 23
- 참치 단백질, 관절염 완화에 효과? / 24
- 피자, 가공 부문 수요충족 위해 추가 참치 공급 모색 / 24

Contents

• 엘니뇨/라니냐 동안 참치 먹이 패턴 변화 / 25	•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급등, 1,310 달러 / 34
• 쿡제도, FFA와 항공감시에 대한 MOU 체결 / 25	• 중국, 남태평양 국가들과 안보협정 체결 불발 / 35
• 동원수산·한성기업 MSC 평가 시작 / 26	• IUU 어업 감시 위한 3개 NGO 연합체 JAC 출범 / 35
• 이토추상사 선망선 19척 MSC 평가 진행 / 26	• 퀴드, 태평양 국가에 위성 모니터링 제공 / 36
• 日,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전략평가 합의 추진 / 27	• 베냉,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GFW 파트너십 체결 / 36
• 세이셸 선망선 그물 재활용 프로젝트 추진 / 27	• WTO 제12차 각료회의 개시...수산보조금 재논의 / 37
• GTA, 일본 투자자에게 오만 남획 중단 촉구 / 28	• SeaBOS, 유해 보조금 철폐 요구 / 37
• 오만, 참치·정어리 통조림 가공공장 건설 / 28	• 컨테이너 운임, 올해도 고공 행진 전망 / 38
■ 오징어어업 동향	• IMO, 어구 표식 의무화 요구사항 개발 예정 / 38
• 페루 2월 어업 생산량 38% 감소 / 29	• 유럽 가공업체, “흰살생선 원제품 가격 40% 상승 예상” / 39
• 아르헨티나 5월 오징어 양륙 누계 18% 증가 / 29	• 중국, 공해 조업 중단 조치 / 39
■ 명태어업 동향	• 인도네시아 공급업체, 美 IUU 규제로 中 선회? / 40
• 러시아, 日 어업 협정 중단 선언 / 30	• NGO 단체, 日 IUU 대책 추가 조치 요구 / 40
• FSA, 서부베링해 명태 어업 MSC 획득 / 30	■ 쉬어가는 난 (시)
• 러시아 수산청장, 日·노르웨이 어업 협력 중요성 강조 / 31	• 바다 <이성복> / 41
• 러시아 5월 12일 시점 어획량 178만톤 / 31	■ 국내 수산 정보
• 中 명태 필렛 계약, 이행 가능한가? / 32	• 5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2
• 캐나다,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발표 / 32	• 5월 명태 국내 동향 / 44
• 英, 러시아산 흰살생선 관세 35% 부과 예정 / 33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단체장들과 소통 시작 / 46
• 명태 필렛 가격, 2009년처럼 급락할 가능성 낮아 / 33	• 선원 평균 임금 월 497만원...원양어선원 801만원 / 47
■ 각국 수산 동향	•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실시 / 48
	• 해수부, 해양수산 규제혁신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전 개최 / 48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원양 업계대표들 면담 상견례, 추후 소통 자리 마련 요청



우리 원양업계 대표들이 지난 6월 3일 오후 3시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김재철 수산정책국장,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신현애 상무, 동원산업(주) 이명우 대표, 사조산업(주) 김치곤 대표, 신라교역(주) 김호운 대표, 예람교역(주) 김치영 대표가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산 등 원양업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인사말에서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1.5%(약 44만 톤)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업

화 초기 수산물 수출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한바 있는 중요산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원양어업경영자금(500억 추가, 금리 3% → 2%)이 고유가고금리 시대에 주요 수산물 공급 기반인 원양업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주시면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을 관계 당국과 적극 협의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업계는 조승환 장관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고 원양업계 현재 상황을 설명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2022년 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 1%p 추가 인하

6.1~12.31까지 2%, 수리·개조 조건 충족 시 1%

올해 한시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최근 고유가·고금리에 따른 원양업계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원양어업경영자금 공급 규모를 500억 증액(1,872억원→2,372억원)하고 대출금리를 1%p 인하하는 내용의 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리가 한시적으로 3%에서 2%로 인하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케이프타운 협정(어선 안전 관련 국제협정) 대비 선박을 수리·개조하거나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수리·개조(관련 시설설비, 물품 구입 포함)하는 경우 1%p 인하’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해당 조건 충족 시 추가 1%p 인하되어 대출금리는

1%가 된다.

예를 들어 상기 수리·개조 조건 충족 선박(2022년에 수리·개조 진행했거나 경영자금 대출 이후 1년 안에 진행할 예정)이 2022년 3월 2일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기간(1년) 내 금리는 아래 표와 같다.

기간	금리	인하 내역
‘22.3.2~’22. 5.31	2%	수리·개조 1%
‘22.6.1~’22.12.31	1%	수리·개조 1%, 추경 1%
‘23.1.1~’23. 3. 1	2%	수리·개조 1%

참고로 수리·개조 금리 인하의 경우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대출분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에 따라 추후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원양 오징어채낚기 업계, 해외 전문가 초빙·협의

‘23 어기 포클랜드제도 입어요건 등

영국령 포클랜드제도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 오징어채낚기 업계가 2022년 어기 입어현황 검토 및 2023년 어기 입어요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영국 및 포클랜드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이번에 초빙한 전문가는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CA)에서 인증한 검사관 자격을 갖춘 선박 안전 점검/선원복지 컨설턴트인 마린 컨설턴트사의 나이젤 블리에즈비, 포클랜드 대방사인 드라곤사 대표 캐롤린 웬디 셔번 2명이다.

이들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리나라

라에 머물며 우리 협회, 업계,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의를 가졌다.

업무협약에서 다뤄진 내용은 입어허가,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선원거주구역, 합작(JV) 추진, ‘23 어기 토레몰리노스협약을 준수한다는 국제어선증서(IFVC) 보유 등이다.

포클랜드는 2020년부터 영국 규정을 준용해 포클랜드 관할 ‘외국어선 검사 매뉴얼’을 개정, 항만국 검색(PSC)을 실시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토레몰리노스협약, 어선원노동협약 준수를 요구한다.

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가능

확진자 발생 선박에서의 하역 등 작업도 가능해져

법무부 무사증 입국 허용 결정에 따라 6월 7일부터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중앙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개정에 따라 6월 8일부터 원양어선원의 검역 절차가 완화되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교대선원 사증 발급 여부) 교대선원 입국 시 교대선원에 대한 사증을 발급해야 했으나 이제 무사증(B-2-4) 입국이 가능해졌다.

△ (확진자 발생 선박에 대한 작업 가능 여부) 확진자 발생 시 격리기간 중 비대면 및 기계하역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했으나 이제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및 선원교대 등이 가능하다.

△ (확진자 발생 선박 내 접촉자) 동승선원은 7일간 격리해야 했으나 이제 10일간 수동감시(PCR 검사, 6~7일차 자가검사 권고)로 전환된다.

△ (항만 입국 단기체류외국인 검사장소) 단기체류외국인은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내 대기했으나 이제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전반적인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에도 변화가 있었다.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지침 개정 전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단,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권고된다.

아울러 국내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5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IMF, 세네갈 경제 회복력 긍정적으로 평가

- 다카르를 방문중인 Gernmayel Edward IMF 사절단 대표는 유가와 식료품 가격 폭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침체, ECOWAS의 말리 제재 등이 악재로 작용하지만, 세네갈 경제가 여전히 역동적이라며, 세네갈 경제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함.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412
	1.8kg	1,365
	1.5kg	1,225
황다랑어	10kg	2,977
	3.4kg	1,630
	1.8kg	1,365
눈다랑어	10kg	1,412
	3.4kg	1,412
	1.8kg	1,365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363 유로/MT	경유	'22.5.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태평양제도 포럼회의 (PIF) 개최

- 태평양제도 포럼 회원들은 어제 2일간의 고위급 대화를 통일된 메시지로 마무리했음.

○ 포럼 의장과 피지 총리 Voreqe Bainimarama는 모든 회원이 승인할 경우 포럼을 강화하고, 공정성에 대한 Micronesian Presidents Summit의 요청에 호소하며, 태평양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개혁 패키지를 제안했음.

○ 아울러, 태평양 제도 포럼이 소지역별로 사무총장과 포럼 의장을 교체하는 데 동의하고 마이크로네시아가 2024년부터 5년 동안 차기 사무총장직을 맡는 데 동의할 것을 제안함.

○ 개혁 패키지는 또한 태평양 제도 포럼의 모든 회원이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및 멜라네시아의 세 소지역 기구의 동등한 대표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함을 보여줌.

○ 이는 이제 각각 사무총장과 다른 소지역에서 2명의 사무차장직을 맡게 됨을 의미함.

○ 사무총장의 직무와 별개의 역할로 태평양 위원을 신설하여 즉시 설치하기로 합의함.

○ 태평양 국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무실은 마이크로네시아에 설치하고 지도자들에게 직접 보고



함. 포럼 소지역 사무소가 마이크로네시아 소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추가 합의가 있었음.

- 회의 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은 포럼 폐기를 철회했으며 7월에 개혁 패키지가 완전히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포럼 회의에는 의장이자 피지 총리인 Voreqe Bainimarama,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대통령 David W. Panuelo; 마셜 제도 공화국 특사 존 실크; 팔라우 공화국 대통령, Surangel S. Whipps Jr; 사모아 독립국의 총리 Fiamē Naomi Mata'afa와 쿡 제도의 총리 Mark Brown이 참석함.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500달러/MT	M.G.O	'22.6.9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율은 날개다랑어 0.5~0.8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4톤으로 전월보다 저조한 어획율을 보이고 있음.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모든 사업체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30분까지 통행금지 하고 있으며, 스타키스트 사모아 통조림 공장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가동 중에 있음,
- 6월 13일부터 하와이와 사모아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탑승 전 코로나 검사가 없어지고 검사는 아메리칸 사모아 공항에 도착하면 실시((5세 이하는 코로나 검사 제외).
- 입국 전 관련 웹사이트에 TALOFAPASS에 등록 필수임.
- 모든 입국자는 백신 2차 이상 접종 시 별도 테스트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양성인 자는 격리조치 후 귀가 조치됨.
- 하와이로 출국하는 탑승자는 3차 백신 접종 확인 서로 별도 검사 없이 비행 탑승할 수 있음.
- 실외 모임 제한폐지, 학교 및 공공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모든 사람의 식당 내 식사가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됨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4.20(gallon)	'22.6.7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락다운 등에 의해 유가 상승 및 컨테이너 선박 지연이 야기되어 선박 운영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수출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나. 최저임금 인상

- 뉴질랜드 최저임금이 다시 대폭 상승해(특히 외국인선원의 임금 상승폭은 내국인 임금보다 더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함) 선박 운영비가 급격히 상승했음.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	종류	가격	좌일
Z	MGO	\$1,459/MT	'21.5.31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4,150	Sea Jho Co LTD.
	L	4,150	
	M	3,450	
	2M	2,900	
	S	3,000	
	2S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ATFLAFCO, 아프리카에서의 IUU 어업과 싸우기 위한 지역적 노력 촉구

- ATFLAFCO는 아프리카 수산업 저널리스트들의 네트워크인 MOSFA(Media Observatory for Sustainable Fishing in Africa)와 공동으로 지난 5월 5일 모로코 Agadir에서 3일간 '어업과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디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 ATFLAFCO는 1989년에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 모로코부터 나미비아까지 아프리카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ATFLAFCO의 주요 목표는 아프리카 지역의 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원국 간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 세미나에서 ATFLAFCO 사무총장 Mr Abdelouahed Benabbou는 아프리카, 특히 서부에서 증가하고 있는 IUU 어업 관행 대처를 위한 지역 노력을 촉구했다.
-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수역이 전 세계 어선 선단을 끌어 드리는 자석이 되었다며 유럽 저인망 어선들이 주요 외국어선들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필리핀, 러시아, 한국, 대만에서 온 어선 선단들로 확장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아프리카 대륙이 매년 "불법 어업으로 13억 달러 상당의 어족자원을 잃는다"고 우려하며 모로코 정부가 아프리카 대륙, 특히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들의 IUU와의 전쟁을 돕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2,200	
	10kg 하	1,760	
가다랑어	3.4kg 상	1,550	
	1.8kg 상	1,500	
	1.5kg 상	1,350	
	1.5kg 하	1,20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1,150달러/키	M.G.O	'22.5.31	
항만급유	1,200달러/키	M.G.O	'22.5.31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계약시스템 어업에서 새로운 투자자 찾기 어려움

- 정부는 계약어업 제도를 적용에 국내 기존 사업자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확인함.
- 이 제도 하에서는 국외 투자자 또는 새로운 투자자의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총어업자원은 1,210만톤으로 2017년의 1,250만톤보다 감소함. 총어자원 1,210만톤에서 어획 허용량은 990만톤으로 산정됨.
- 3월 30일 해양수산부 어업총국장 Muhammad Zaini는 총 어획 허용량 중 계약어업 제도하의 사업자에게 입찰에 부칠 쿼터를 연간 400만톤

으로 정하고, 어획 상황에 따라 200만톤을 추가 쿼터로 책정하며, 기업어업 해역 지역 어민용 쿼터를 280만톤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계약어업 제도 하에 쿼터배분은 국내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기존사업자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의 쿼터를 배분하고, 나머지를 새로운 투자후보군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함.
- 계약어업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법인은 컨소시엄을, 개인사업자는 조합을 형성해야 하며, 각각의 어업법인은 연간 최소 10만톤의 쿼터를 신청해야 하고, 계약기간은 15년간이며, 연장 가능함.
- 현재 21개의 새로운 국내의 투자자 그룹이 참여할 의향을 표시했음. 그러나 새로운 투자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운 투자그룹은 기본 투자금이 200억 루피아이고 수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은행보증서와 어획수수료 선금 등 600억 루피아의 공탁금이 필요함.

나. 재래식 새우양식장을 재개발 사업 추진

- 재래식 새우양식장의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현재 새우생산량 85~90만톤/년을 2024년에는 2백만톤으로 증산할 계획임.
- 2022년 국내 새우 생산량계획은 120만톤인데 2024년에는 새우 수출액을 250% 증가한 42만 5,000 달러를 목표로 정함.
- 3월 14일 인도네시아 새우포럼의장 Budhi Wibowo씨는 “재래식 새우양식장 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남부술라웨시주, 서부술라웨시주, 람뽕주, 동부자와주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고 말함.



- 일부 양식장에서는 재개발 후 생산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모든 양식장이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님.
-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0,501헥타르 새우 양식장 중 247,803헥타르가 재래식임.
- 해양수산부에서는 인도네시아 내 15개 시도에서 양식장 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2021년도 새우 수출량이 250,700톤으로 2020년에 비해 4.9퍼센트 늘어났으며, 새우 수출액은 22만 3,000 달러로 전년에 비해 8.5퍼센트 늘어나는데 그침.
- 2022년에는 239,000톤, 20만 4,000달러의 수출로 전년보다 14.9%, 18.6% 증가함.

다. 기업형 어업용 어획 단계적 증가 기대

- 해수부 어업 총국장 Muhammad Zaini는 계약어획제도가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현재 법무 인권부에서 어획수수료 납입방법에 대한 최종법률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함.
- 기업형 어업자의 계약어획제도에 따르면 각 어업법인은 연간 최소 10만톤의 어획쿼터를 신청해야 하며, 각 어종별 쿼터량은 정부발표 자원량에 준함.
- 올해는 총 어획쿼터의 60%인 460만톤을 기업형 어업자에게 배정하여, 이 쿼터의 15%를 어획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3년에는 40%, 2024년에는 75%, 2025년에는 100%의 쿼터를 소진할 것으로 기대함.
- 정부 수납어획수수료는 실제 어획량에 따른 액수를 지불함.
- 현재 20개의 회사가 계약어획제도에 참여신청을 하였고, 총 요청 어획쿼터는 410만톤에 달함.

- 몇몇 회사는 외국회사와 합작으로 참여함
- 2022년 1월 5일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총톤수 30톤 이상 어선 5,056척이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총 톤수로 보면 479,508톤이며 어획물 운반선 허가는 419척임.

라. 수산양식 벤처회사 e Fishery 대규모 투자금 유치

- 수산양식 벤처사인 e Fishery가 9,000만 달러의 투자를 여러 투자자로부터 받음.
- 이 자금은 대부분 eFishery의 디지털 환경시스템에 관한 수산양식의 사업 확장에 쓰일 예정임
- e Fishery에 투자한 그룹은 Temasek, Soft Bank Vision Fund 2, Seguaia Capital India, Northstar그룹, GoVentures, Aqua-Spark, Wavemarker Partners 등임.
- e fishery는 현재 인도네시아 24개 주에 산재한 10만 개소 양식장의 3만 수산양식 사업자와 연결되어 있음.
- e Fishery의 공동창업자이자 상무이사인 Gibran Hujaifah씨는 “이 자금이 투자되면 2022년도에 각 수산양식업자들의 사업이 3 ~ 3.5배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1백만 수산 양식업자와 협업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 1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힘
-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 약 350만 명의 수산양식업자가 있음.

〈개제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참치마요 햄 무스비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참치 1캔(100g), 햄 200g, 현미밥 200g, 김밥김 1장(1/2 컷팅 사용), 체다치즈 18g(1장), 피클 1개, 청양고추 1/2개, 홍고추 1/2개

<소스 재료>

마요네즈30g,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참기름 3g, 참깨 2g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햄을 50g씩 잘라 노릇하게 구워 준비한다.
- ② 참치, 마요네즈, 피클, 청양고추, 청고추와 버무려 준비한다.
- ③ 현미밥을 소금, 후추, 참기름, 참깨와 버무려 준비한다.
- ④ 무스비 틀에 반으로 컷팅한 김을 깔고 밥→햄→슬라이스 치즈→참치필링→밥을 넣고 김으로 말아 완성한다.



4월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12개월 내 최고치 1일 적당 어획량 2020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

4월 중서부태평양(공해, PNA 수역) 선망선 어획량은 지난달 대비 16% 증가한 13만 2,530톤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이후 다시 한 번 12만톤을 넘어서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망스러운 평균 이하 조업 양상이 끝나는 모습이다.

선망선 1일 적당 평균 어획량은 40톤으로 2020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어종별로 보면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달 대비 2만톤 증가한 12만톤을 기록했다.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지난달 대비 감소했지만 1일 적당 평균 어획량이

1톤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황다랑어 치어 어획량은 지난달 대비 증가했지만 1일 적당 어획량이 2톤 미만이었다.

수역별로 보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서부 특히 파푸아뉴기니 EEZ(49%)에서 대부분이 어획되었다. 키리바시와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지난달 대비 증가했다. 반면, 솔로몬 수역 어획량은 급감했다. 솔로몬 수역은 3월에 두 번째로 생산적인 어장이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30일자



PNA 항구 전재량 21% 증가 2년 내 최고

4월 PNA 항구 참치 전재량(선망선에서 운반선)은 3월 대비 21% 증가한 7만 1,397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불안정한 시기를 겪은 지난 2년 내 가장 많은 전재량을 기록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참치의 대부분은 PNA 서부, 특히 파푸아뉴기니(PNG) EEZ에서 어획되었다. 그 결과 PNG 항구 전재량이 3만톤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마셜제도 마주로항은 2만 7,000

톤으로 PNG 뒤를 이었다. PNG와 마셜제도 항구 전재량은 태국, 필리핀, 중국, 에콰도르로 향하는 운반선에 전재된 총량의 81%를 차지했다.

키리바시는 1만 3,000톤을 기록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경우 3월 약 1만톤이었으나 4월은 거의 없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31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급락, 1,600 달러 이하

중서부태평양 어획량 증가, 중국 봉쇄 등이 원인

5월 30일자 Undercurrent News 보도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의 가다랑어 어획량 증가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영향으로 인해 방콕으로 배송되는 가다랑어 가격이 급락했다.

4~5월 방콕으로 운송되는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800~1,900 달러까지 상승했으나, 익명을 요구한 3인의 소식통에 따르면 6월 운송분 가격은 톤당 1,600 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다. 태국참치산업협회(TTIA) 회장인 Chanintr Chalisarapong 또한 최근 방콕에서 개최된 Thafx Anuga Asia에서 가다랑어 가격이 1,600 달러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현재 다수의 운반선이 태국 현지에서 하역 작업 중이거나 대기 중이기 때문에, 주요 구매자

들은 가격을 낮추려 할 것이고 선주들도 이에 응할 준비가 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시아에 본사를 둔 한 무역업체 임원은 중서부태평양 어획량이 너무 많은 반면 중국의 경우 봉쇄로 인해 어획물을 거의 매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9일자 Atuna 보도에 따르면 톤당 1,600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일부 중계업체가 톤당 1,550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품질과 사이즈에 따라 그 이하까지도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5월 30일자, Atuna, 2022년 6월 9일자

1분기, 인도양 참치 방콕 수입 급증

스페인산 157,081%, 프랑스산 4,427%, 세이셸산 1,033%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방콕으로 들어온 주요 상업용 참치 물량은 15만 8,851톤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3만 3,100톤) 감소한 수치이다.

원산지로 보면 수입량은 마이크로네시아(20% 감소), 대만(42% 감소), 바누아투(57% 증가), 한국(52% 감소), 몰디브(7% 감소), 나우루(38% 감소) 순이다. 한국산은 1분기 기준으로 5년간 가장 적었다.

CFR 기준 톤당 평균 수입금액은 27%(379 달러) 상승했다. 키리바시산이 톤당 1,609 달러로 가장

낮았고 인도네시아산이 2,281 달러로 가장 높았다. 인도네시아 수출에는 날개가다랑어가 포함되어 있어 단가가 높다.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획량 부족 및 세이셸에 비해 높은 태국 가격으로 스페인산(157,081% 증가), 프랑스산(4,427% 증가), 세이셸산(1,033% 증가) 등 인도양 참치 수입량이 급증했다.

한편, 미국산 수입량은 2021년 1분기 7,866톤이었으나 올해 1분기 53톤에 불과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16일자



태국 가다랑어 1분기 수입량 20% 감소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

올해 1분기 방콕의 냉동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3만톤) 감소한 11만 8,248톤으로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총 참치 원어 수입량(15만 8,851톤)에서 75%를 차지했다.

톤당 평균 수입금액은 1,623 달러로 1분기 기준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년 전 1,036 달러에서 600 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원산지별 수입량은 마이크로네시아산(26% 감소), 대만산(50% 감소), 바누아투산(78% 증가), 몰디브산

(6% 증가), 한국산(54% 감소), 스페인산(100% 증가), 카리바시산(28% 감소), 나우루산(55% 감소), 마셜제도산(-56%) 순이다. 미국산은 지난해 6,664톤이 수입되었으나 올해 '0'이다.

스페인산, 프랑스산, 세이셸산 등 인도양 가다랑어 수입량은 1만 9,608톤으로 집계되었다. 스페인산의 수입량은 지난해 '0'였으나 올해 9,969톤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17일자



태국 황다랑어 1분기 수입량 22% 증가

5년 내 최고치

올해 1분기 방콕의 냉동 황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 증가한 2만 8,330톤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총 참치 원어 수입량(15만 8,851톤)에서 황다랑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이다.

원산지별 수입량은 대만산(89% 증가), 나우루산(93% 증가), 마이크로네시아산(51% 증가), 한국산(42% 감소), 바누아투산(24% 증가), 카리바시산

(40% 감소), 마셜제도산(62% 증가), 인도네시아산(68% 감소), 몰디브산(68% 감소), 일본산(37% 감소) 순이다.

톤당 평균 수입금액은 33% 상승했다. 인도네시아산이 톤당 3,743 달러로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며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20일자



태국 참치 부문, 수출 물량 10% 증가 예상

중국 봉쇄·인플레이션이 원인

태국 방콕에서 열린 Thaixex Anuga Asia에서, 태국참치산업협회(TTIA) Chanintr Chalisarapong 회장은 2020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2021년에 감소한 참치캔 사재기 현상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재발, 수출 물량이 최소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halisarapong 회장은 또한 올해 2~3분기 태국발 참치 수출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부태평양에서 FAD 사용 금지 기간이 시작되는 7월에는 일반적으로 원재료(참치) 공급이 어렵지만, 올해는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고 Chalisarapong 회장은 말했다. 회장은 중국의 봉쇄 조치와 이에 따른 중국 공장들의 생산 능력 감소로 인해 원료들이 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halisarapong 회장은 지난 수개월간 어획량이 저조했으며, 이는 유가 상승과 함께 4월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1,900 달러까지 치솟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Chalisarapong 회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다른 단백질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참치가 이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말 중국 수요가 회복된다면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800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halisarapong 회장은 미국이 태국 참치캔 최대 시장의 자리를 유지했으며,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 지역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구매력이 높아 올해 매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5월 26일자

팔라우 수산부 장관, 연안 참치 어업 확대 주장

식량 안보에서 참치 역할 확대

팔라우 농수산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Environment) 장관 Steven Victor는 참치가 팔라우의 식량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업 허가를 통한 수입 외에도 참치가 적절한 가격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해야한다며 연

안어업에 대한 압박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안어업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국내 참치 어업은 식량 안보를 위해 필요한 어류의 25%를 공급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13일자



日 2022년 4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4월 눈다랑어 수입량 전월 대비 79% 증가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누계
날개다랑어	한국	113	6	16	96	231
	대만	625	298	49	951	1,923
	바누아투	-	1	71	522	594
	기타	15	15	-	2	32
	소계	753	321	137	1,569	2,780
황다랑어	한국	221	210	596	513	1,540
	중국	47	284	120	430	881
	대만	603	1,031	1,318	2,425	5,377
	필리핀	123	-	131	493	747
	바누아투	148	24	72	103	347
	피지	23	50	-	-	73
	키리바시	29	-	-	-	29
	마셜제도	551	-	149	50	750
	기타	564	587	568	1,316	3,035
소계	2,309	2,187	2,954	5,329	12,779	
눈다랑어	한국	11	30	27	113	181
	중국	177	467	502	592	1,738
	대만	1,372	2,158	2,438	4,084	10,052
	세이셸	103	874	310	792	2,079
	바누아투	138	318	47	629	1,132
	기타	135	32	207	110	484
	소계	1,937	3,880	3,531	6,319	15,667
남방참다랑어	한국	449	-	-	-	449
	대만	95	5	-	2	102
	소계	544	5	-	2	551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6월 3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1,000~1,100 엔 대만산 수입량 4,084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4월 참치류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수입량 363톤(2021년 동월 대비 64% 감소), 수입 금액 5억 900만 엔(53% 감소), 냉동 수입량 2만 6,824톤(21% 증가), 수입 금액 420억 3,200만 엔(58% 증가), 가공품 수입량 4,012톤(23% 감소), 수입 금액 27억 1,000만 엔(7% 감소)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수입량은

6,319톤(43% 증가)이며, 이 중 주력인 대만산은 4,084톤(55% 증가)을 기록했다.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초과)의 kg당 수입 단가는 일간수산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가격인 969 엔 대비 증가한 1,000 엔 이상이며, 미나토신문에 따르면 kg당 1,100 엔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미나토신문, 2022년 6월 3일자

日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kg당 1,179엔 지난달과 거의 차이 없으나 한층 상승할 가능성도

일본 도요스시장의 4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의 상장 마릿수는 1만 956 마리(지난해 동월 대비 11% 감소)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상장 마릿수 1만 마리를 넘어섰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고가 상장과 운반선 입항 등이 겹친 결과이며 원료 공급 전망이 호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표된 가격의 중간가는 kg당 1,179 엔(29% 상승)으로, 3월 중간가인 1,180 엔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전박적으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이 한층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5월 16일자

일본 연승선사 Fukuichi, MSC 절차 시작 증서부태평양 공해, PNG 수역

적합성심사기구(CAB)인 Control Union (UK) Limited는 Fukuichi Fishery Co., Ltd가 증서부태평양 공해(FAO 71해구)와 파푸아뉴기니(PNG) 수역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연승 어업에 대한 MSC 인증 획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어업에 대한 의견통지보고서 초안(ACDR,

총 6단계 중 2단계 초기 보고서)이 이번 주 MSC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다.

평가 대상 어선은 일본국적 연승선 10척이다. 일정에 따르면 최종보고서는 2023년 1월에 게시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23일자



IATTC 과학자문위,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건강”

중서부태평양 지속가능한 참치, 새로운 경쟁자 등장 가능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건강에 대한 우려는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과학자문위원회(SAC)에서 최신 자원 평가 결과가 발표되며 사라졌다.

평가 결과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이 IATTC의 관리 아래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IATTC는 몇 년 전 가다랑어 자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는 주로 종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원평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IATTC는 2020년에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특히 FAD 영향에 대해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본부는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상태를 적색으로 평가한바 있다. 당시 WWF의 움직임은 이해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IATTC는 WWF가 지나치게 불리하게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제 긍정적인 자원 평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WWF의 평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MSC 인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최소 3개의 선망어업이 가다랑어 어업 인증을 받기 위해 평가에 들어갔다. 이중 인증에 실패한 2개 어업의 주요 실패 원인은 신뢰할 수 있는 자원 평가 부족이다.

이러한 이유로 라틴아메리카 가공업체와 EU 구매자 간 비즈니스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동부태평양 가다랑어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문이 열렸다.

서부태평양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인증 참치 관련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25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1,750~1,850 달러 수준

향후 몇 주간 가격 하락 예상

만타 냉동 가다랑어 원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1,750~1,850 달러 수준이다. Atuna에 따르면 현재 가격은 1,850 달러이며 이해관계자들이 향후 몇 주 동안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UndercurrentNews에 따르면 5월 전반 가격이 1,850 달러 정도로 형성되었으며 현재 가격은 1,750~1,800 달러 수준이다.

현재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5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3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3년 동안 4~5월에는 가다랑어 가격이 하락했다. 종종 동부태평양 금어기(7월초)가 시작되기 직전인 6월에 바닥을 쳤다.

한편, 최근 동부태평양 조업 상황은 연초에 비해 소폭 나아졌지만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UndercurrentNews 2022년 5월 30일자



IOTC,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실패

눈다랑어 관리절차, 전제 규정 강화 합의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제26차 연례회의에서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에 실패했다.

몰디브와 EU가 IOTC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황다랑어 관련 포괄적인 제안을 내놓았지만 인도, 오만, 소말리아의 감축 거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IOTC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2월에 특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어업국이 어획통제규칙(HCR)에 따라 인도양 가다랑어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EU와 몰디브는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가다랑어 어획량 감축에 반대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제안서를 철회했다. 2023년까지 가다랑어에 채택된 HCR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인도양 내에서 조업하는 선망선사는 MSC 인증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많은 연안국이 사용 금지기간 설정을 포함한 dFAD(부유형 FAD) 관리 관련 조치를 지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dFAD 관련 특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눈다랑어 관리절차는 합의되었다. 합의된 관리절차에 따라 과학위원회는 내년에 TAC를 권고할 것이다. 전제 관련 건도 합의되었다. 회원국들은 어선의 전제 보고서 제출 의무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IOTC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운반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건에 동의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23일자

IOTC, 참치 전제 모니터링 강화

24m 이상 참치 연승선 및 해당 운반선 대상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5월 연례회의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발표했다.

IOTC는 전장 24m 이상인 대형 참치 연승어선과 이러한 선박에서 참치를 전제할 수 있도록 허가된 운반선에 적용되는 전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IOTC 회원국은 각국 국적 대형 연승선의 해상 전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IOTC는 또한 회원국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또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신호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보고 없이 사라지거나 미심쩍은 움직임이 있는 운반선의 항구 검색을 우선적으로 수행

하도록 항구 통제를 강화에 나서고 있다.

회원국은 IOTC 운반선 기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선박이 참치, 참치 유사 종, 상어를 적재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구에서의 전제 활동 점검 시 어선 항해일지에 기록된 어종별 어획량 교차 확인을 포함해 전체 운송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운반선은 어선을 기준으로 어획물을 분리해 적재해야 하며, 선박, 주요 어종 및 기타어종별 적재 수량의 보관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적재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13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5% 하락 1,501 달러

인도양 참치 가공업자,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물 가격 인하 요구

인도양 가다랑어 조업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지난 몇 주 동안 악화되었다. 일부 선망선들은 여전히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

인도양 참치 선단은 인도양 가공공장의 평상시 평균 원어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이셸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5월 대비 5% 하락한 톤당 1,400 유로(1,501 달러)이다. 소식통은 참치 가공업자들이 계속해서 원어 조달에 대한 비용 감소를 모색함에 따라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공업자들은 EU 시장 고객들에게 그들의 제품이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 가공업자들은 방콕의 가다랑어 가격 하락을 지적하며 인도양 어업자들이 가격을 낮추길 바란다.

그러나, EU 선망선 선주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들은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요인으로 실망스러운 어획량, 제한된 공급, 높은 운영비를 지적했다. 가공업자와

선주 간의 교착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지켜 봐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세이셸 IOT 공장과 모리셔스 Princes 공장의 일일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6월 둘째 주 기준 세이셸 병커항의 선박용 경유(MGO) 병커 가격은 톤당 200 달러 상승해 1,400 달러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료 비용이 2배 상승해 참치 1톤을 어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30%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O 병커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주들의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현재 대부분의 인도양 선단은 세이셸 남서부 수역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다. 2015년 이후로 EU-모잠비크 수산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많은 선망선의 모잠비크 협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세이셸 황다랑어 현물 가격은 5월 대비 2% 하락한 톤당 2,600 유로(2,787 달러)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10일자

Europêche, EU 어선 불법어업 주장에 반발

Blue Marine Foundation, 불법어업 가능성 제기

Blue Marine Foundation은 허가 없이 인도와 소말리아 EEZ에서 조업해온 것으로 보이는 스페인·프랑스 국적 선망선의 국내·국제 규정 위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어선 중 일부가 2019~2020년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꺼서 '어두워 졌다'고 언급했다.

Europêche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EU, 세이셸, 모리

셔스 당국 중 누구도 Blue Marine Foundation이 제기한 불법어업에 혐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입어 협정 없이 연안국 수역에서 조업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Europêche는 Blue Marine Foundation이 제기한 문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19일자



1분기 EU 참치캔 수입량, 구매력 저하로 소폭 감소 톤당 평균 수입금액 6% 상승

올해 1분기 EU 참치캔 수입량은 달러 대비 유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로 인해 소폭 감소했다.

달러 대비 유로 환율은 지난해 1분기 0.81 유로에서 올해 1분기 0.88~0.90 유로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EU 참치캔 수입업자들은 에콰도르·필리핀·PNG산(달러 결제) 참치캔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유로로 지불해야 했다.

올해 1분기 EU의 참치캔 수입액은 4억 8,360만 유로이다.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 감소한 10만 5,938톤이다. CFR 기준 톤당 평균 수입금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6% 상승한 4,565 유로를 기록했다. 수입금액이 상승한 원인은 달러 강세, 원자재 비용 증가 등이다.

원산지별로 보면 비EU 국가산 수입량은 3% 증가, EU 국가산 수입량은 12% 감소했다.

비EU 국가 중 에콰도르산은 1만 8,580톤으로 지난해 동기와 거의 동일했다.

파푸아뉴기니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28% 증가한 7,993톤으로 지난 2년 동안의 감소분을 일부 회복했다. 필리핀산은 11% 감소한 4,072톤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파푸아뉴기니산은 증가하고 필리핀산은 감소하며 필리핀산이 파푸아뉴기니산으로 대체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EU 기업들은 파푸아뉴기니와 필리핀 두 국가 모두에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PNG산의 톤당 수입금액은 주요 원산지 중 가장 낮았다.

태국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8% 감소한 3,743톤이었다. 태국산은 24%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어 가격 수준이 높다.

EU 국가산은 스페인 12% 감소(1만 9,812톤), 네덜란드 31% 감소(5,500톤), 독일 20% 증가(4,233톤), 이탈리아 24% 감소(3,653톤)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1일자

1분기 미국 참치캔 수입량 10% 감소 태국·멕시코산 20% 감소

올해 1분기 미국의 참치캔 수입량은 3만 4,715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총 수입금액은 1억 5,700만 달러이다.

1분기 수입량은 2020년 4만 4,341톤, 2021년 3만 8,577톤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톤당 평균 수입금액은 4,485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원산지로 보면 태국산 1만 8,891톤(20% 감소), 멕시코산 4,062톤(20% 감소), 인도네시아산 3,886톤(8% 증가), 베트남산 3,741톤(25% 증가), 에콰도르

산 1,408톤(420% 증가), 코스타리카산 620톤(15% 증가), 중국산 575톤(111% 증가) 순이다.

톤당 평균 수입금액은 멕시코산이 3,663톤으로 가장 낮았다. 멕시코산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멕시코 지역사회 할인마트로 향한다.

1분기 몰디브산 수입량은 13톤으로 지난해 332톤에 비해 96% 감소했다. 톤당 평균 수입금액은 6,243톤으로 가장 높았다.

* 기사출처: Atuna, 2022년 5월 24일자



타이유니온 MSC 참치 조달 2.4%로 감소

FIP 조달 85.7%

타이유니온은 지난 5월 31일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

타이유니온은 공급망 투명성을 위해 미국 기반 환경 NGO The Nature Conservancy(TNC)와 협력해 2025년까지 모든 파트너 어선에 전자 모니터링을 설치, 참치 공급망에 대한 100% '해상(on-the-water)' 모니터링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에는 '2025년까지의 참치 약속'과 관련해 6가지 목표와 약속이 언급되어 있다.

- 타이유니온이 조달하는 참치는 MSC 인증을 위한 FIP 참여가 85.7%, MSC 평가 진행 또는 MSC 인증이 2.4%이다.
- 어선은 선박개선계획(Vessel Improvement Plans)을 완료했거나 선박행동강령(Vessel Code of Conduct)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충족한다.

· 어선은 해상에서 모니터링되며 사람 또는 전자적으로 감시된다.

· 공급업체와 타이유니온은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의 보존조치를 준수한다.

· 어선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결의에 따라 데이터를 보고하고 쿼터 할당 및 보존조치를 충족해야 한다.

· 판매되는 참치로 조업 선박을 추적할 수 있으며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다이얼로그(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 GDST) 1.0을 구현할 수 있다.

MSC 참치 조달은 2.4%로 2020년 3.2% 비해 0.8p 감소했다. 타이유니온은 "2025년까지 MSC 표준을 만족하는 어업에서의 조달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FIP에서 MSC 평가 진행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3일자

참치캔, 미국 수산물 소비 3위

1인당 소비량 1.18kg

2020년 미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8.61kg로 2019년 8.75kg 대비 0.14kg 감소했다.

반면, 참치캔 1인당 소비량은 1.18kg로 2019년 대비 0.14kg 증가했다. 전체 캔 제품은 1인당 소비량은 1.91kg이다.

어종별 순위는 새우(2.27kg), 연어(1.28kg), 참치캔(1.18kg), 틸라피아(0.49kg), 알래스카 명태(0.40kg), 대구(0.26kg), 게(0.24kg), 메기류(0.24kg), 팡가시우스(0.18kg), 가리비(0.10kg)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20일자



참치 단백질, 관절염 완화에 효과?

엘라스틴 펩타이드 성분의 관절염 완화 효과 발견

참치에 함유된 엘라스틴 펩타이드(elastin peptides) 성분의 인간 관절염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중국 닝보 대학 과학자들은 최근 “장내 미생물 및 SCFA(짧은사슬지방산, 장내 미생물의 주요 대사 산물로, 탄소수가 6개 이하로 적은 지방산을 의미) 구성 조절을 통한 참치 엘라스틴 펩타이드의 AIA 쥐(실험용으로 보조제를 주입해 인공적으로 관절염을 유발한 쥐) 개선 효과”라는 연구를 기능성식품저널(Journal of Functional Foods)에 발표했다.

류머티스 관절염(RA)은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소염제 치료법이 일반적이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과학자들은 새 RA 치료 전략의 수단으로 참치 엘라스틴 펩타이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원들은 40마리의 실험용 수컷 쥐에 AIA 유도제를 주사했고, 투여 10일 후 질병 징후가 뚜렷한 쥐에게 42일간 매일 참치 엘라스틴 펩타이드를 투여했다.

AIA에 대한 엘라스틴 펩타이드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쥐의 발바닥 붓기 정도, 마이크로 CT 수준, 체중 등이 평가되었다. 연구 결과, 참치 엘라스틴 펩타이드가 AIA 쥐의 뼈 파괴 정도를 완화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펩타이드가 투여된 쥐의 분변 미생물 성분을 다른 생쥐에 이식하여 참치 엘라스틴 펩타이드의 관절염 개선 효과가 전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RA를 완화하는 유익한 기능성 식품으로서 참치 엘라스틴 펩타이드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18일자

피지, 가공 부문 수요충족 위해 추가 참치 공급 모색

어선 최소 250척 추가 필요

피지가 자국 주요 참치로인 가공업체인 태평양어업회사(PAFCO)의 날개다랑어 수요 충족을 위해 자국 EEZ 밖에서 참치 로인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Semi Koroilavesau 피지 수산부 장관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PAFCO와 기타 여러 시설에 알바코어 참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어선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oroilavesau 장관은 피지가 연간 수요 충족을 위해 최소한 250척의 선박을 더 끌어들이 필요가 있

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지 정부는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수역 접근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피지는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Koroilavesau 장관은 의회에서 합작투자 협정을 통해 선망선을 가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WCPFC에는 총 69척의 연승선이 피지 국적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Fiji Times, 2022년 5월 16일자



엘니뇨/라니냐 동안 참치 먹이 패턴 변화

서식지, 종에 따라서도 달라

‘참치의 위 내용물과 장내 미생물군집(박테리아)이 태평양 생태계 구성에 관해 실시간에 가깝게 감지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연구가 학술지 *Frontiers in Marine Science*에 게재되었다. 연구자는 오스트리아 캔버라대학 과학자 그룹이다.

이들은 2015~2017년 사이 다양한 엘니뇨/라니냐 (La Niña or ENSO) 기간 동안 태평양에서 어획된 가다랑어 55마리와 황다랑어 41마리의 위 샘플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모두 위 내용물 구성이 서식지와 엘니뇨/라니냐 발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도 서경 170° 이서에 있는 국가(키리바시, 파푸아 뉴기니, 호주 등)의 연안 인근에서 어획된 가다랑어·황다랑어의 위에서는 태평양 외해(공해)에서 어획된 것에 비해 더 다양한 먹이가 발견되었다.

황다랑어 표본에서는 가다랑어에 비해 훨씬 다양한 위 내용물(어류 21, 두족류 8, 갑각류 6)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먹이 종의 다양성이 엘니뇨 기간에는 동부태평양 방향으로 경도가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라니냐 기간에 어획한 참치의 위에서는 더 다양한 먹이 종이 발견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13일자

쿡제도, FFA와 항공감시에 대한 MOU 체결

쿡제도에서 사용할 항공기 2척 제공

6월 4일 Mark Brown 쿡제도 총리와 Manu Tupou-Roosen 태평양수산위원회(FFA) 의장은 쿡제도에서 사용할 항공기(기종 King Air) 2기를 제공하는 ‘항공감시 서비스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 지도자들은 2018년에 FFA 항공감시 프로그램(ASP)을 수립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ASP는 태평양해양안보프

로그램을 통해 호주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쿡제도는 이 프로그램으로 경찰 초계정 ‘Te Kukupa호’를 지원 받은바 있다.

ASP는 주로 어업 감시 및 집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관, 이민, 초국가적 범죄와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8일자



동원수산·한성기업 MSC 평가 시작

연승선 15척

적합성평가기관(CAB) Control Union(UK) Limited는 동원수산, 한성기업의 중서부태평양 연승선 눈다랑어·황다랑어·날개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의견통지보고서 초안(ACDR, 총 6단계 중 2단계 초기 보고서)을 발표했다.

평가 단위(UoA)는 총 4가지로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중서부태평양 눈다랑어,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이다.

평가 대상 어선은 연승선 15척으로 한성기업 4척, 동원수산 11척이다.

이해관계자는 60일 동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 방문은 8월 1일 주로 계획되어 있다. 공개의견 초안 보고서(PCDR)는 11월말에 게시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8일자



이토추상사 선망선 19척 MSC 평가 진행

사조그룹 합작사 5척 포함

적합성평가기관 SCS Global Services는 이토추상사의 해양관리협회의(MSC) 평가에 대한 의견통지 보고서 초안(ACDR, 총 6단계 중 2단계 초기 보고서)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가다랑어, 황다랑어 선망 어업으로 스쿨 조업과 FAD 조업을 모두 포함한다. 조업 수역은 PNA 수역, 쿡제도 EEZ, 중서부태평양 공해이다.

대상 어선은 총 19척으로 국적으로 보면 대만 12척, 투발루 2척, 키리바시 3척, 바누아투 2척이다.

키리바시와 바누아투 국적선 5척은 사조그룹 현지 합작사가 소유하고 있다.

MSC 홈페이지에 따르면 19척의 2019년 어획량은 가다랑어 5만 8,817톤, 황다랑어 9,406톤이다.

이토추상사는 현재 사조그룹 선망선 6척(사조 알렉산드리아, 콜롬비아, 패밀리아, 콘코디아, 포세도니아, 포텐시아)의 MSC 인증도 추진 중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31일자



日,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전략평가 합의 추진

합의에 따른 2025년 태평양 참치 쿼터 증가 기대

7월 중순 개최 예정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합동 작업반 회의를 앞두고, 일본 수산청과 수산연구교육기구(이하 수연기구)는 6월 10일 어업인에게 태평양 참다랑어의 자원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수연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3월 북태평양 다랑어류 국제과학위원회(ISC)가 실시한 최신 자원평가에서 WCPFC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에서 합의한 차기 자원회복 목표가 달성되었다. 산란 자원량이 역대 최저치라는 리스크가 있으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의 타카세 미와코 심의관은 “관리전략평가(MDE)에 합의해, 이에 근거한 과학적 쿼터 증가·감소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쿼터 증가의 지름길이며 이에 주력하겠다”며 “다음 자원 평가는 2024년으로, 자원회복 목표 달성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2025년이 쿼터

증가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타카세 심의관은 “일본에서는 TAC 제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어획 보고에 의문을 제기하는 안전이 발생해 개선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한 후 “회복 목표 달성 후의 신규 관리 목표 설정, 관리전략 책정, 어획증명 제도(CDS)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했다.

관리전략은 목표로 하는 자원의 수준 등을 정한 뒤 자원상태와 어획압력에 따른 TAC 등을 미리 계산해 설정하는 관리방법이다. 불법 어획물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제도인 CDS는 대서양 참치류에는 이미 도입되었으며, 태평양 참다랑어에도 도입하는 문제가 WCPFC와 IATTC의 주요 과제라고 타카세 심의관은 설명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미나토신문, 2022년 6월 13일자

세이셸 선망선 그물 재활용 프로젝트 추진

세이셸 스타트업 Brikole, 순환 과정 개발 맡아

스페인 대형참치냉동선생산자연합(OPAGAC), 세이셸 청색경제부, 비정부기구(‘Sustainability for Seychelles’, ‘Organisation Des Producteurs De Thon Congele Et Surgele’) 등이 세이셸의 스타트업 Brikole과 함께 참치 선망 그물 재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OPAGAC에 따르면 Brikole사는 29척(스페인 8척, 세이셸 6척, 프랑스 11척, 모리셔스 3척, 이탈리아 1척)의 어선에서 수명을 다한 그물을 기부 받아 순환(재활용) 과정 개발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6월 1일자



GTA, 일본 투자자에게 오만 남획 중단 촉구 오만을 IOTC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는 역할 요구

세계참치연맹(GTA)은 일본 사모펀드 Gulf Japan Food Fund(GJFF)의 오만 어업회사 Oman Fisheries(OF) 투자가 인도양 참치 남획과 열악한 자원 관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GTA는 성명에서 2020년 오만 참치 어획량이 2017년 대비 255%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만 최대 어업 회사 중 하나인 OF에 대한 투자는 참치 자원에 '추가적인 압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GTA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오만 어획량 43만 977

톤 중 오만인 어획량은 16%, 6만 8,785톤에 불과하다.

오만은 2021년 황다랑어 쿼터 감축을 거부한 6개국(인도네시아, 이란, 마다가스카르, 오만, 소말리아, 인도) 중 하나이다.

GTA 관계자는 "GTA는 GJFF가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해 오만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황다랑어의 재건과 포괄적인 장기 관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5월 19일자



오만, 참치·정어리 통조림 가공공장 건설

연간 3만톤 생산 규모

인도양에서 어획된 참치 및 정어리를 가공하기 위해 오만에 신규로 통조림 가공공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International Seafood Company의 자회사 Fisheries Development Oman은 2024년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해 현지 회사와 1,400만 오만 리알(3,65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투자금액은 3만 오만 리알

(7,800만 달러)이다.

신규 공장은 오만 Duqm(오만 중부에 위치한 우스타 주에 속한 마을) 수산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으로 연간 3만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참치, 정어리, 기타 수산물을 가공할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7일자



페루 2월 어업 생산량 38% 감소

대왕오징어 51.2% 감소

페루 생산부에 따르면 페루 수산 부문의 2022년 2월 생산량은 14만 6,800톤(지난해 대비 38% 감소), 생산액은 6,460만 달러(21.1% 감소)를 기록했다.

생산부에 따르면 이는 라니냐로 인한 식용(Direct Human Consumption, DHC) 오징어, 고등어 및 기타 종 어획량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페루의 2월 식용(DHC) 어획량은 47.7% 감소한 10만 5,300톤을 기록했다. 대왕오징어, 전갱이, 가다랑어, 고등어 어획량은 각각

51.2%, 78.6%, 34%, 62.2% 감소했다.

또한, 양륙된 수산물의 46%는 냉동, 35%는 신선, 14%는 통조림으로 판매되고 나머지는 경화(건조, 절임 등)로 판매되었다.

생산부에 따르면 2월 냉동 수산물 생산량은 4만 8,900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2.1%(8만 200톤) 감소했다. 또한 신선 수산물은 2021년 2월 4만 900톤에서 올해 2월 3만 7,300톤으로 9% 감소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5월 17일자



아르헨티나 5월 오징어 양륙 누계 18% 증가

5월 어류 양륙 누계 5% 증가

아르헨티나 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1~5월 어류 양륙량 누계는 총 35만 1,263톤으로, 지난해 동기 양륙량 누계(33만 3,921톤) 대비 5%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주요 어종인 일렉소오징어의 증가에 기인했다. 아르헨티나의 1~5월 일렉소오징

어 양륙량은 총 14만 9,028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아르헨티나 민대구(merluza hubbsi)의 양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 증가한 8만 7,486톤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revistapuerto.com.ar, 2022년 6월 8일자



러시아, 日 어업 협정 중단 선언

日측의 문서조인 지연·협정 협력금 미지급 주장

러시아가 일본 어선들의 쿠릴 열도 4개 섬 인근 '안전 조업'을 허용하는 러시아-일본 어업 협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쿠릴 열도 주변 12해리 이내 수역에서 행해지는 '안전 조업'은 러시아 당국의 일본 어선 나포 등을 피하기 위해 1998년 체결되었다. 일본은 협력금을 지불하여 할당된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 있다. 기간과 어획량, 협력금 등은 매년 협상으로 정해진다.

러시아 측은 일본 측이 협정을 위해 매년 체결되는 문서 조인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협정에 따른 협력금 지급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 Maria Zakharova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이 작동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할린 주 무상 기술 지원 제공에 관한 문서 서명을 지연시키고, 협력금의 지불을 '동결'하는 방침을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측은 또한 "일본 측이 모든 재정적 의무를

다할 때까지 1998년 협정의 이행을 정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안전 조업의 어업 대상에는 명태, 멧게, 문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비우호 국가 및 지역' 명단에 일본을 포함했고, 3월에는 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의 평화조약 협상 중단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가 사할린 주 협력 사업을 협정 실시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협정 이행 정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나, "협정 하에서 일본이 조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NHK, 2022년 6월 8일자, 마이니치, 2022년 6월 8일자

FSA, 서부베링해 명태 어업 MSC 획득

오호츠크해 MSC에 이어

Russian Fishery Company(RFC)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러시아어선선주협회(FSA)가 서부베링해 명태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받았다. SA의 이번 인증 획득은 지난 2월 오호츠크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RFC는 러시아명태어업자협회(PCA)와의 어업 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며 2020

년 PCA에서 퇴출되었다. 이에 따라 오호츠크해 및 서부베링해 MS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추후 불법으로 판결되어 MSC 사용 권리를 되찾았다.

RFC는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다른 어업 회사들과 함께 자체 인증을 추구하게 되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6월 2일자



러시아 수산청장, 日·노르웨이 어업 협력 중요성 강조 제재와 별개로 어업 협력 유지 전망

일본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기선련)의 보도에 따르면, Ilya Shestakov 러시아 수산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일본·노르웨이의 어업 협력 발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Shestakov 청장은 일련의 제재 조치가 있었으나 양국 간 어업 협력이나 어획 쿼터 배분 방침에는 특별한 변경이 없었다고 밝혔다.

Shestakov 청장은 바렌츠해와 노르웨이해의 양국 간 어획 쿼터를 갱신했으며 6개 항목에 걸친 어업분

야 협력을 지속하고 올 가을에는 정례 러시아-노르웨이 간 어업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양측의 쿼터 배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Shestakov 청장은 또한 일본 당국과 태평양연어 등 양국 수역에 걸쳐 있는 자원 관리에 대해 대화가 진행 중이며, 이들과 어업 협정을 유지해 불법 어업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5월 27일자

러시아 5월 12일 시점 어획량 178만톤 극동 어획량 135만톤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기선련)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 1월부터 5월 12일까지의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 증가한 178만톤을 기록했다.

최근 1개월간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 감소한 약 31만 5,600톤이다. 주력인 극동 조업구역이나 북부 조업구역 어획은 순조로웠으나, 외국·국제협정수역·공해나 코스피해 등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

구분	수량(톤)	전년비
극동	1,350,000	105%
북부	184,120	100%
발틱해	41,570	89%
아조프·흑해	16,000	80%
카스피해	31,800	97%
외국	154,600	82%
국제협정수역·공해		
기타	1,910	
합계	1,780,000	101%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5월 17일자



中 명태 필렛 계약, 이행 가능한가?

생산 회복 더더 계약 이행 가능 여부에 의문 커지는 중

중국 가공업체의 더블프로즌(double-frozen, 냉동 상태에서 해동되어 가공된 후 2차 냉동된 제품) 필렛 납품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산물 가공 허브 지역인 다롄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폐쇄된 후 다시 가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Undercurrent News의 소식통에 따르면 다롄은 총 생산량의 절반 정도만을 소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칭다오에서 일부의 생산을 분담하고 있으나 전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H&G(머리, 내장 제거) 명태의 현물 가격은 톤당 약 1,500 달러까지 오르고 있으나, 생산량은 낮아지고 있다. 중국의 더블프로즌 명태 필렛 생산·수출은 다롄 가동 중단 및 생산량 회복 둔화로 인해 매우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칭다오의 한 가공업체 임원은 “중국 가공공장의 경우, 국가 코로나 정책 때문에 1,500 달러에 추가 비용과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실제 (러시아산 H&G)

가격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블프로즌 명태 가격은 톤당 4,300~4,500 달러까지 오른 싱글프로즌(1차 냉동) 제품을 따라 상승하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의 여부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해당 임원은 “현재 가공업체들이 주문을 더 소화할 여건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 흰살생선 부문 임원에 따르면, 중국의 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시장은 현재 심각한 과매입 상태이며, 중국 가공업체들의 납품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닛스이 산하의 덴마크 수산기업 JP Klausen 사의 Jens Peter Klausen 전무는 중국 가공업체의 납품 지연이 상당한 수준이며,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일부 유럽 공장들이 제때 원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일시적 가동 중단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5월 18일자

캐나다,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발표

RFC 전 소유주 포함 14인 제재 조치

Melanie Joly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 5월 20일 캐나다에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러시아산 사치품 목록에 “수산물(seafood)”과 “어류(fish)”가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Joly 장관은 해당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이 취한 제재 조치를 따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특히 사치품 시장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 재벌)를 겨냥한 것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5월 20일자, Intrafish, 2022년 5월 20일자



英, 러시아산 흰살생선 관세 35% 부과 예정

6월 발표 후 즉시 발효될 전망

UndercurrentNews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러시아산 흰살생선 35% 관세 도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관세 도입은 6월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소식통은 관세 도입이 발표되면 그 즉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3월 15일 러시아 대상 사치품 수출 금지와 함께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35%의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했고 초기 관세부과 목록에 흰살생선

도 포함되었으나, 3월 25일 관세가 발효됐을 때 흰살생선은 목록에서 제외된 바 있다.

영국 국제무역부의 수산업 전문관인 Julie waites에 따르면, 흰살생선 관세 부과 시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접했으나 정확한 시일은 아직 알지 못하며, 관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는 사실 외에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어떤 공급망 부문에 영향을 미칠지 등의 상세 내용은 아직까지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5월 13일자

Intrafish, 2022년 5월 13일자

명태 필렛 가격, 2009년처럼 급락할 가능성 낮아

높은 수요·대안 부족 원인

미국산 명태 필렛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2009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격이 최고점에서 한순간에 급락했던 2009년과 달리, 이번엔 급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싱글프로즌(1차 냉동) PBO(가시 제거) 필렛 블록의 현물 가격은 톤당 약 4,600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최대 연안 명태 가공업체인 ASG의 영업부장 Rasmus Sorensen은 “시장이 B시즌과 2023년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며 “수요-공급 불균형

을 감안하면 2023년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Gidrostroy의 국제영업부장 Torunn Halhjem은 B시즌 PBO 가격이 톤당 5,000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본 닛스 이 산하 J.P. Klausen사(社)의 전무 Jens Peter Klausen은 톤당 4,500 달러 선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익명의 한 유럽 대형 가공업체 임원 또한 B시즌에 톤당 5,000 달러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5월 19일자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1,310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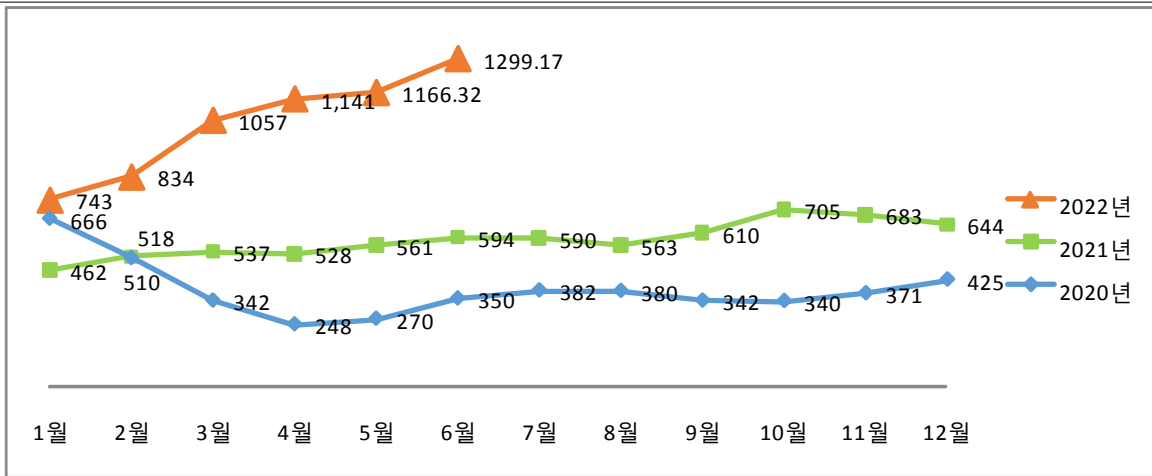
3분기 중 국제유가 150 달러 넘어설 수도

현재 유가는 공급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6월 8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7.5 달러, WTI 가격은 배럴당 122.11 달러, 브랜트유 123.58 달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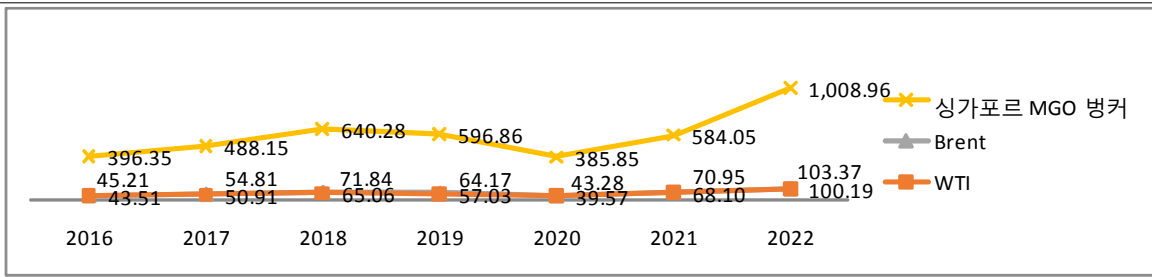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6월 8일 기준 톤당 1,310 달러, 6월 평균(6.1~6.8) 1,299 달러, 2022년 평균(1.1~6.8) 1,009 달러이다.

세계 최대 상품거래회사인 트라피구라의 제레미 위어 CEO는 7일 "유가가 여름까지 15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경제 전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인 125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월 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연 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 2022년 6월 가격(6.1~6.8), 2022년 가격(1.1~6.8)



중국, 남태평양 국가들과 안보협정 체결 불발

마이크로네시아 등 일부 국가 우려 표명으로 실패

안보부터 어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포괄적 협정에 대해 10개 태평양 국가들의 승인을 받는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Frank Bainimarama 피지 총리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견장을 떠났다.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국이 중국의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Bainimarama 총리는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새로운 지역 협정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국가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David Panuelo 대통령은 다른 태평양 지도자들에게 이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계획이 불필요하게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왕이 부장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몇몇 분야를 열거하고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또 "이번 회담 후에도 우리는 더 많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

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순방 기간 동안 키리바시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태평양 국가들과 작은 규모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

AP통신이 입수한 다자간 협정 초안에는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공안을 파견해 해당 국가의 경찰을 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 집행 협력, 참치 어업을 포함한 어업 협력, 사이버 보안 문제 등 네트워크 협력 강화, 각국과의 정치적 관계 확대, 해도(海圖) 작성,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자학원(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어 및 중국문화 교육 기관) 설치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남태평양 10개국에 대한 중국의 수백만 달러 규모 지원,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들 간 자유 무역협정(FTA) 가능성,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 등이 담겼다.

* 기사 출처: AP통신, 2022년 5월 30일자

IUU 어업 감시 위한 3개 NGO 연합체 JAC 출범

항구 통제, 전재 활동, 정찰 강화에 중점

수산 정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3개의 비영리 기구가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 및 연안국들의 IUU 어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Joint Analytical Cell(JAC)이라는 그룹을 창설했다.

3개 비영리기구는 Global Fishing Watch(GFW),

International MCS Network(IMCSN), and TM-Tracking(TMT)으로 이들은 5월 31일 상호 보완적인 기술·장비를 활용하고 IUU 어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JAC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6월 2일자



쿼드, 태평양 국가에 위성 모니터링 제공

IUU 어업 근절 목적

아시아 국가들의 영해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주도 연합 하에 새로운 위성 시스템이 배치되고 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이 계획은 태평양 국가에 위성 기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특히 중국이 더 큰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는 태평양의 소규모 도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쿼드가 새롭게 창설한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IPMDA)'은

IUU로 의심되는 선박을 추적하기 위해 상업 위성 사용자와 협력한다. 이 인공위성은 어선이 자동식별 시스템(AIS)을 끄면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를 추적한다. IPMDA는 싱가포르와 솔로몬제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배치된 '정보 전파 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자연재해 대응 노력 또한 지원한다. 상업 위성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쿼드의 발표문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이징 관영 매체들은 쿼드를 NATO와 비슷한 형태의 대(對) 중국 동맹으로 묘사했으며, 최근 미국과 호주는 중국의 솔로몬제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5월 25일자

베냉,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GFW 파트너십 체결

EEZ 내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통제·감시 강화 목적

선박 기반 해양활동을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목적의 공개 접근 온라인 플랫폼인 Global Fishing Watch(이하 GFW)는 베냉과 EEZ 내 어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통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GFW는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어업 분석, 역량 구축, 선박 모니터링 톨 교육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베냉은 그 일환으로 현재 선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GFW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정식 합의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자국 선단 활동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베냉이 최초이다.

GFW는 베냉 외에도 카메룬, 가봉, 기니, 모리타니, 세네갈과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또한, 기니만 지역어업위원회(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for the Gulf of Guinea)와 하위지역어업위원회(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도 GFW 가입에 관심을 표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5월 23일자



WTO 제12차 각료회의 개시...수산보조금 재논의 합의 도달까지 난관 존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이번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2차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긴 협상을 끝내고 유해 수산보조금을 근절할 합의에 도달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까지는 아직 몇 가지 난관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간 연기된 후 6월 12~15일간 개최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장관·각료들의 최우선 과제는 유해 수산 보조금 근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올해 초부터 초안에 관해 논의해왔다.

초안 본문에는 여전히 몇 가지 쟁점이 있으며 특히 미·중이 이러한 쟁점에서 대립하고 있다.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 및 강제노동에 관해 추가된 조항들이 쟁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저소득국 및 최빈개발도상국(LDC)이 자국 선단에 수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또한 많은 회원국들이 합의하지 못한

논제이다.

수산보조금 협상 의장인 Santiago Wills 콜롬비아 대사는 지난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협상 타결에 이렇게 가까워진 적은 없었으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UN 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Wills 의장은 최신 수산보조금 협정 초안에서 전 세계 해양 어획 생산량 중 연간 점유율이 10% 이상인 WTO 회원국에 대해 어떠한 면제도 주어지면 안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카리브 및 태평양 연안국(ACP) 그룹 등이 수산 보조금 규제에서 차등적 대우를 하는 유연성이 적용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출처: Atuna, BusinessToday.In, 2022년 6월 13일자

SeaBOS, 유해 보조금 철폐 요구

6월 개최 예정인 UN 해양회의 앞두고 발표

세계 최대 수산기업 10개사가 연합한 SeaBOS(해양관리수산업회의체)는 유해 수산보조금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변혁을 방해하는 장벽이 되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Therese Log Bergjord 의장이 서명한 해당 성명은 6월 개최 예정인 UN 해양회의를 앞두고 발표되었다.

SeaBOS는 각국 정부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제한할 것과, 아울러 보조금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또는 남획에 이용되지 않게 하기위해 안전장치와 추가적 감시 등의 조치를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5월 30일자



컨테이너 운임, 올해도 고공 행진 전망

中 폐쇄·美 성수기 혼잡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소매업계와의 대화에서 “물가가 오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태평양 횡단 운임”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9개 주요 해운회사들이 운임을 1,000%나 인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컨테이너 재배치 컨설턴트 Container xChange사에 따르면 5월 전 세계 평균 컨테이너 가격은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DC)의 경우 평균 5.4%,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HC)의 경우 평균 15%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Container xChange 공동창업자 겸 CEO인 Christian Roeloffs는 보도자료를 통해 “(태평양 횡단) 항로에 컨테이너가 급증해 선박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다가오는 성수기에 스폿 레이트(spot rate, 계약 후 즉시 적재 가능한 용선 계약에 지급되는 운임)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

했다.

중국 상하이 항구 운영이 재개되어 7월까지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징과 최대 항구인 톈진은 여전히 폐쇄 상태이며, 상하이 폐쇄의 영향 또한 아직 남아 있다고 Roeloffs는 지적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휴스턴의 항구에서 여전히 “대규모 혼잡”이 계속되고 있다고 Roeloffs는 말했다.

전미소매협회(NRF)와 컨설팅 기업 Hackett Associates는 6월 미국의 주요 소매 컨테이너 항구(retail container ports)에서 기록적인 물동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NRF 공급망 및 관세 정책 담당 부사장인 Jonathan Gold는 개학 시즌 학용품 및 명절 상품 물량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7월 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미 서부연안 노동 계약 협상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6월 10일자

IMO, 어구 표식 의무화 요구사항 개발 예정

MARPOL Annex V에서 다뤄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어구의 표식을 의무화하는 목표 기반 요구사항이 개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전략은 UN 공인 옵서버 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어구관리를 위한 모범사례 프레임워크(C-BPF)’와 UN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발적 어구 표식 지침’에서 권장되고 있다.

GGGI는 유령 어구 경감 대책의 주요 전략으로

어구 표식을 권장한다. GGGI는 유령 어구를 근절하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의 정부, NGO,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이번 IMO 어구 표식 의무사항은 일부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면 바다에 어떠한 쓰레기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인 MARPOL Annex V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6월 13일자



유럽 가공업체, “흰살생선 완제품 가격 40% 상승 예상”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량 10% 감소 전망

유럽 최대 가공업체 중 하나인 Espresen사(社)의 CEO Klaus Nielsen에 따르면, 현재 흰살생선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완제품 가격이 올해 말 40%까지 상승할 수도 있으며, 생산량은 두 자릿수로 감소할 수도 있다.

Nielsen은 현재도 완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원료 및 기타 비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 상승을 여전히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Nielsen은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에 다다르기 전에 완제품 가격이 30% 이상, 심지어 4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Nielsen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요 타격, 물류 문제, 원료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Espresen사가 올해 생산을 두 자릿수로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Nielsen에 따르면 어획량 부진 및 물류 문제로 인해 북대서양에서 흰살생선 원료를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재 입수 가능한 원료에 맞춰 생산량을 조정 중이며, 최종적으로 약 10%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6월 10일자

중국, 공해 조업 중단 조치

남서대서양·북인도양 7월 1일~9월 30일...참치 연승선 제외

중국 농림부는 최근 발표한 회보를 통해 올해 공해상의 특정 수역에서 자발적인 조업 중단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상에서 참치 연승선단은 제외되었다. 농림부는 북인도양 공해상 일부 수역에서 최초로 조업 중단 조치를 시범적으로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서대서양·북인도양 공해 조업 중단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부태평양 공해 조업 중단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조업 중단 대상 어선은 오징어 어선과 트롤선 등

의 중국 원양어선이며 관련 수역에서 조업하는 참치 연승선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수역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황다랑어 재건 계획 관할에 포함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남서대서양·동부태평양 주요 공해 어장에서 자발적 조업 중단을 시행 중이다.

* 기사 출처: China.org.cn, 2022년 5월 26일자, Atuna, 2022년 5월 30일자



인도네시아 공급업체, 美 IUU 규제로 中 선호?

수출 쉬운 아시아 시장 선호

미국 메인 주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North Atlantic사의 설립자 Jerry Knecht에 따르면, 미국의 지나치게 엄격한 수입 규제로 인해 아시아 공급업체들이 중국으로 판매처를 선호하고 있다.

Knecht는 본래 인도네시아 가공업체들은 자국 소매 시장보다도 미국 식품 서비스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선호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에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중국의 인도네시아 수산 부문 투자 증가, 중국의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을 주요 수출처로 찾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Necht는 이러한 추세가 NGO가 요구하는 노동 기준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Necht는 이들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Necht는 인도네시아에는 노동법이 있으나 집행 기관은 없으며, 따라서 더 많은 입법과 집행을 통해 노동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목표가 애초에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환경 정의 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이 최근 주최한 웨비나에서 미국 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Monica Medina는 미국 정부가 IUU 어업 및 관련 노동 문제 해결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Medina는 미국이 IUU, 노동 문제, 식량안보 위협 등에 대한 새로운 정부 단위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6월 7일자

NGO 단체, 日 IUU 대책 추가 조치 요구

추적가능성 확대·어선 기록 제공 등 필요성 제기

17개 NGO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이 추적가능성 및 수입 감시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일본의 수산시장에 투명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제안에는 일본에 유통되는 전 수산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전자 어업 기록 및 보고 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된다.

일본은 지난 4월 26일 특정 해양 동식물의 자국 무역 개선법에 근거해, 수산물 수입에 관한 신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성명은 또한 EU나 미국이 현재 시행하는 조치(예: 미국 수산물 수입 감시 프로그램 등)와 같이 국제 표준과 일치하는 추적 시스템을 만들고,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다이얼로그(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 GDST)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개선을 이룰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5월 30일자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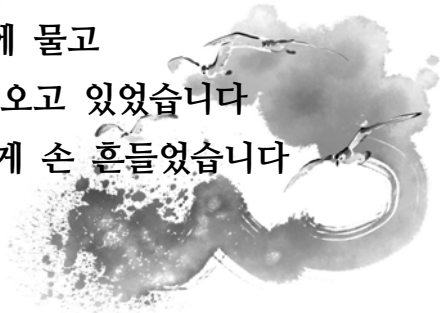
이 성 복

서러움이 내게 말 걸었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안했어요

서러움이 날 따라왔어요
나는 달아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먼 길을 갔어요

눈앞을 가린 소나무 숲가에서
서러움이 숨고
한순간 더 참고 나아가다
불현듯 나는 보았습니다

질푸른 물굽이를 등지고
흰 물거품 입에 물고
서러움이 서러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엎어지고 무너지면서도 내게 손 흔들었습니다





5월 오징어 국내 동향 소비자가격 전월과 비슷, 수입 13.7% 감소

□ 생산동향(5월 오징어 생산량, 지난해와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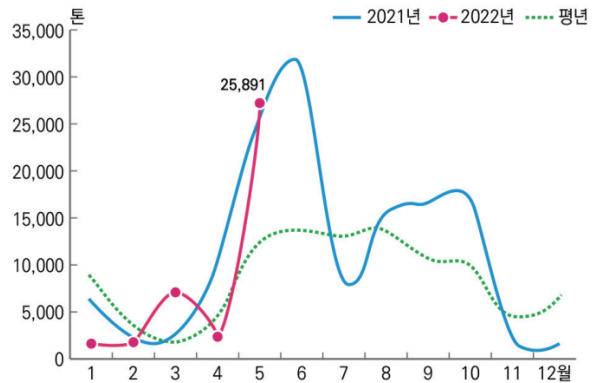
2022년 5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월(2,604톤) 대비 크게 증가한 2만 5,891톤이었다.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평년(12,170톤)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채낚기 조업이 재개된 연근해산 생산량은 1,375톤으로 전월(24톤)보다 증가했으나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

지역별 위판량을 살펴보면, 거제수협 위판량이 47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울산(450톤), 구룡포(150톤), 기장(121톤) 등으로 나타났다.

원양산 반입량은 전월보다 9배 이상 증가한 2만 4,516톤이었다. 이는 2월부터 4월 초까지 대서양 및 태평양에서 어획한 물량의 반입이 5월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 5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3만 8,601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평년(31,879톤) 보다는 21.1%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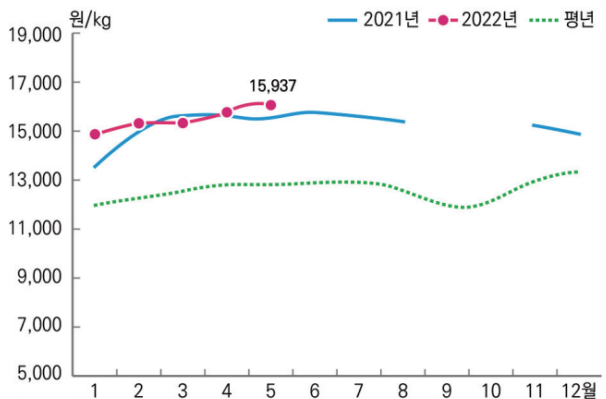
주 : 2022년 5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해양수산부, 잠정치는 당 센터 추정 결과

□ 가격동향(5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과 비슷한 kg당 15,937원)

5월 오징어(신선냉장) 도매가격은 전월(13,680원)과 비슷한 kg당 13,900원이었다.

그러나 유통량이 많지 않아 소비자가격은 형성되지 않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9,646원으로 전월과 비슷했다. 소비자가격도 kg당 15,937원으로 전월과 비슷했다. 이는 연근해산 어한기가 계속됨에 따라 냉동품으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정부비축물량을 방출했기 때문이다.



주 : 2022년 5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 수출입동향(5월 오징어 수출량, 페루산 수입 줄면서 전월 대비 1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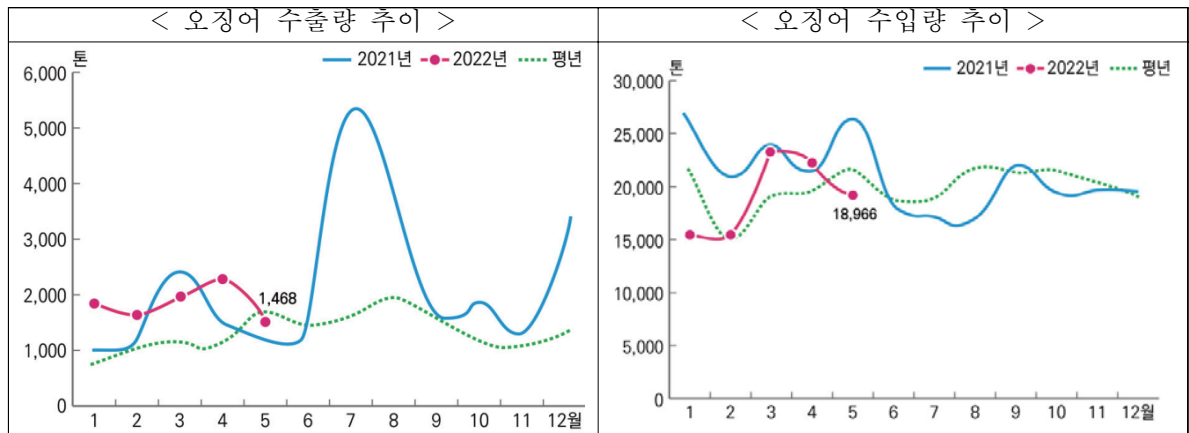
5월 오징어 수출량은 1,468톤으로 전월 (2,413톤)에 비해 39.2% 감소했다. 지난해보다는 17.2% 많았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11.1% 적었다.

제품별로는 냉동오징어가 1,122톤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389톤), 태국(279톤), 미국(276톤), 베트남(272톤) 등 4개국 물량이 전체의 82.9%를 차지했다.

5월 오징어 수입량은 페루산 수입이 줄면서 전월(21,988톤) 대비 13.7% 감소한 1만 8,966톤이었다. 제품별로는 냉동이 3만 8,274톤으로 전월 대비 2.5%, 지난해 대비 11.6% 감소했으며 냉동 제외 기타가 5만 6,671톤으로 전월 대비 20.9%, 지난해 대비 37.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9,74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페루산(6,555톤), 아르헨티나산(1,445톤) 등의 순이었다.

5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9만 4,945톤으로 평년과 비슷했으나 지난해(119,047톤)보다는 20.2% 적었다.



□ 재고동향(5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10% 증가한 6만 3,882톤)

5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6만 3,882톤으로 전월(58,060톤)에 비해 10.0% 증가했다.

연근해산은 생산이 많지 않아 전월 대비 재고량이 4.8% 감소했다.

원양산의 경우 반입량이 크게 늘어 전월 대비 재고량이 16.3% 증가했다.



* 자료 출처: KMI 수산관측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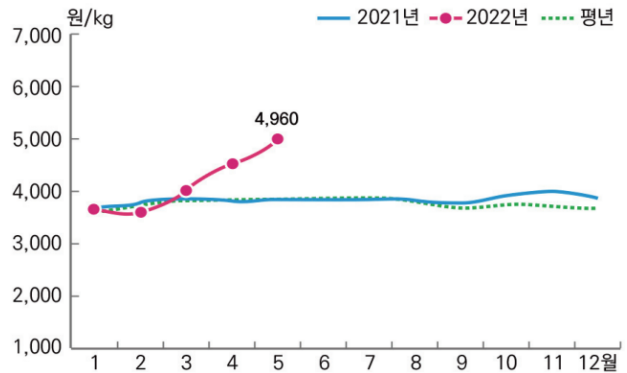


명태 국내 동향 소비자가격 13% 상승, 수입 43% 증가

□ 가격동향(5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10% 상승한 kg당 4,960원)

5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750원으로 전월(2,628원) 대비 4.6% 올랐다. 지난해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28.2%, 30.1% 높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또한 kg당 4,960원으로 전월(4,530원)에 비해 9.5% 상승했으며, 지난해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30% 정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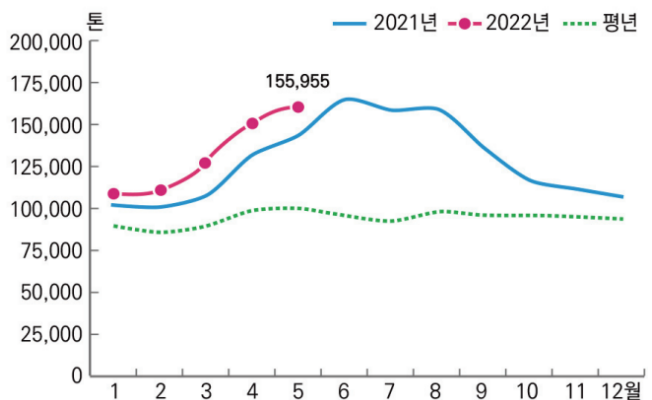


주 : 2022년 5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 재고동향(5월 재고량,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15만 5,955톤)

5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15만 5,955톤 으로 전월(149,550톤)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및 중국의 코로나 방역 등과 같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재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수출입량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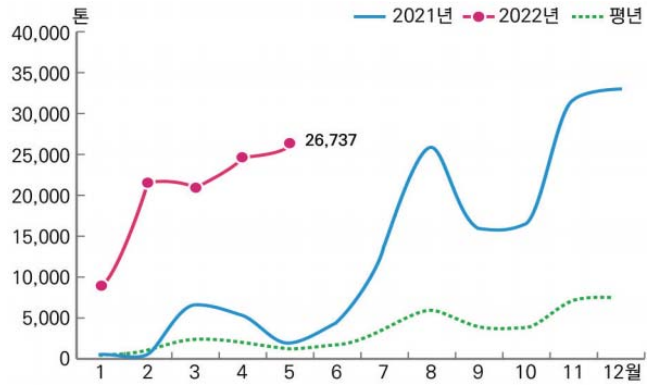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5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22% 감소한 5만 1,989톤)

5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24,257톤) 대비 20.9% 증가한 2만 6,737톤이었다.

‘코로나19’ 관련 검역이 강화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러시아산 명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4배 이상, 평년에 비해서는 20배 이상 많았다.

수출대상국 및 제품형태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냉동명태 2만 4,252톤과 냉동필렛 144톤, 베트남으로 냉동명태 785톤 등이 수출되었다.

<명태 수출량 추이>



명태 수입량은 전월(46,715톤)에 비해 43.0% 증가한 6만 6,792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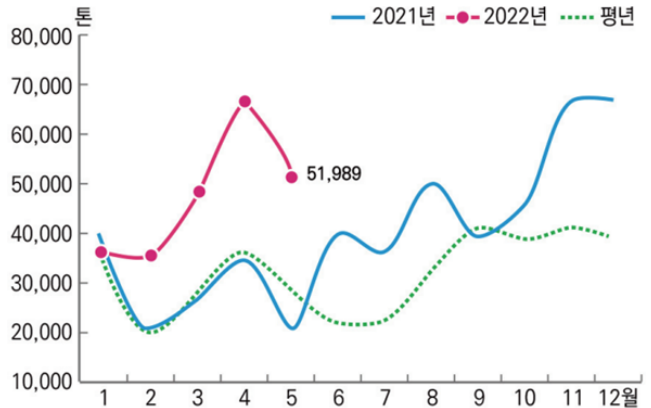
지난해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94.0%, 74.6% 많았다.

이 중 중국 등으로의 재수출용 물량은 3만 6,022톤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4만 6,478톤으로 평년 대비 두 배 이상 수입되었으며, 다음으로 미국산 냉동연육(8,153톤), 러시아산 냉동 필렛(7,064톤) 등의 순이었다.

4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8만 9,913톤으로 지난해 동기기간에 비해 55.4% 많았다.

<명태 수입량 추이>



주 : 2022년 5월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자료 출처: KMI 수산관측 6월호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단체장들과 소통 시작 장관-전국수산단체장 첫 간담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월 23일 전국수산단체장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 장관은 수산분야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복지, 소득, 생활여건 개선 등 어업인과 어촌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수산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수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정영훈 한국수

산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이기진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배기일 한국수산무역협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장, 주홍준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 이동훈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산단체장들은 어업규제 완화 이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 등 수산계 현안과제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선원 평균 임금 월 497만원... 원양어선원 801만원 해수부, 「2022 한국선원통계연보」 발간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취업선원 현황, 임금 수준 등이 포함된 '2022 한국선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한국선원통계연보는 해양수산부가 매년 발간하는 선원 분야 국가승인 통계 자료집으로 업종별 및 직책별 선원 취업 현황과 임금수준 등 선원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담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총 59,843명이며, 한국인 선원은 32,510명으로 전년 대비 1,055명이 감소하였다. 외국인 선원은 전년 대비 558명 증가하여 27,333명이고, 국내 총선원의 45.7%로 작년대비 2%가 증가하였다. 1984년 통계 작성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선원의 경우 연근해어선 취업이 13,534명(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항선 8,238명(25.4%), 내항선 7,414명(22.8%), 해외취업선 2,173명(6.7%), 원양어선 1,151명(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해

외취업선원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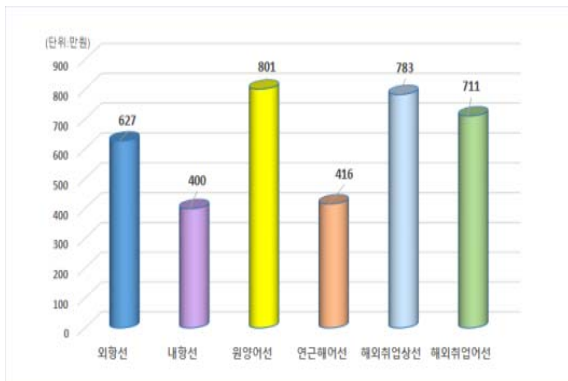
한국인 선원의 임금 수준은 월 평균 497만 원으로 2020년(493만원)보다 4만원(0.8%)이 증가했으며, 10년 전인 2011년(403만원)에 비해서는 22.3% 상승했다.

업종별 월 평균임금은 원양어선원이 80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외취업상선(783만원), 해외취업어선(711만원), 외항선(627만원), 연근해어선(416만원), 내항선(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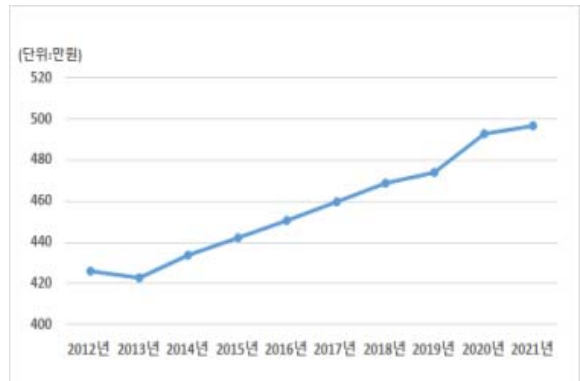
주요 직책별 월 평균임금으로는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가 575만원, 갑판부원, 기관부원, 조리부원 등 부원은 376만원이었다.

한국인 선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 이하는 21.3%(6,925명), 40~50대는 42%(13,658명), 60세 이상은 36.7%(11,927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선원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월평균임금(2021년 말 기준)



최근 10년간 월평균임금 추이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실시 해수부, 5월 30일부터 노사정·해경 합동으로 공동조사

해양수산부는 5월 30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동단체, 선주단체와 함께 노사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에는 한국선원고용

복지센터와 지방해양경찰서도 동행하는데,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점검하며,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이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과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권압수,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하는 한편, 숙소 상황을 확인해 앞으로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 해양수산 규제혁신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전 개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기술과 신산업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비롯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부처와 부서 간에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면 모두 가능하다. 공모전

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내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거나, 이메일과 우편으로 응모하면 된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개선 과제에 대해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상자 6명을 선정하고, 총 650만원(1등 1명 300만원·2등 2명 100만원·3등 3명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가자들 중 200명을 추첨해 커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사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겸직)
	김영수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동환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해외협력 2부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부산지부	-	(051)	총괄	
		이성재 이사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 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국제협상 지원팀	한지수 행정관	044-868-7837	OFIS, 해외수산투자, 행정	해외진출 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044-868-7838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46호

발행 : 2022년 6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한국원양산업협회**
 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양망)」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홍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	-----------------------------------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	------------------------------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	----------------------------------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	---------------------------

	조기류(민어과) 저수용 생선으로 저칼
--	--------------------------------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	----------------------------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나다.
-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나다.